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밥상(1)

2014 년 12 월 7 일

“은혜의 밥상”(누가복음 5:27~35)

최근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한끼를 들라면 지난 주 금요일에 먹었던 한 끼입니다.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저희 집에 일찍 온 다혜네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는 그 다음날의 피크닉이 되었습니다. 서부를 방문한 경란 자매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적한 캠핑장에서 잠은 자지 않고 밤까지 있으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캠핑장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그냥 피크닉 그라운드에서 우리의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거의 한 시가 넘어 2 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모두 배가 무척이나 고했습니다. 가져간 음식을 모두 꺼내 놓고 가장 빨리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차콜에 불을 붙이고 새우구이를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토브에 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새우 소금구이와 게 라면을 흡입하면서 동시에 조개구이를 시작했습니다. 조개들이 익으면서 입을 벌리는 그 즈음에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죠. 아, 아직도 새우들이 많이 남아서 새우도 다시 소금에 굽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다 먹을 즈음에 모두가 겨우 시장기를 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양념에 재어간 쭈꾸미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새우는 많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매콤한 쭈꾸미와 밥을 먹었습니다. 남은 밥은 남은 쭈꾸미 양념에 볶아 먹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는 또 밥을 볶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두 시간 가량에 벌어진 식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백 마일이었습니다. 밥만 먹고 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싫어서 이미 남은

어두워져 가는데 굳이 유명한 바닷가를 왕복 2 마일이나 걸어서 다녀온 후에 다시 백마일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동네 공원에서 해 먹어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우리는 왜 거기까지 갔던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기억에 남는 밥상은 무엇이고 언제였나요?

베이 지역에 살면 이래저래 무엇인가 외식할 일이 많습니다. 선택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많은 대화들은 먹을 것에 관한 대화가 많습니다. 최근에 형제들은 서로의 회사 식당들을 오가며 회사 식당 메뉴를 즐깁니다. 어제의 교회 김치 담그기는 김치가 목적이 아니라 돼지고기 수육을 먹기 위해 김치를 담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나눈대로 200 마일 운전해 가서 먹은 밥상이나 어제의 교회 밥상이나 혹은 우리의 밥상들이 맛도 맛있지만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식도 많고 만남도 많은 이 연말 시즌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밥상들 속에서 기쁨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얼굴을 찡그리고 먹기를 원치 않고 누구도 굳은 얼굴로 밥상을 떠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12 월에 세번에 걸쳐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밥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은혜의 밥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그대로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 은혜가 함께 흐르는 밥상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tax-collector)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전에 12 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아라.' 다시 말해 제사장이 이 나병환자가 정말로 나았다고 입증을 해 주어야 나병환자를 정결하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정결의식이란 정말로 삶을 바꿀만큼 중요하단 사실입니다. 정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율법에서 중요한 세가지를 들라면 안식일 준수와 할례와 음식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식은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대로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구별되어진 음식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때는 어땠을까요? 또 음식에도 그랬다면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29 절)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리가 단순히 세리가 아님을 압니다.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음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와 로마의 황제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로마황제를 대신하여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던 세리는 단순히 식민지의 반역자일 뿐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거부하는 종교적으로도/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30 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밖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거요?” 그밖의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음식에 정결의식을 그토록 강조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살기를 강요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슬쩍 눈감아주고 넘어갈 그런 종류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30 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한 말,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라는 불평은 결국 왜 잔치를 벌이느냐, 왜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누구와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불만이고 항의였습니다. 로버스 캐리스란 사람이 지적한 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방식때문에 살해당하셨다”고 했는데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렸던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미워했고 죽음에까지 몰아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께서 전통을 바꾸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며 결국에 죽기까지 하고자 한 것은 “죄인들”을 밥상에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인자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45 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또 누 19:10 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마지막은 누 7:34 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는 워렌 버핏과의 식사는 올해는 2백 17 만불에 싱가포르의 앤디 추아라는 사람이 가졌졌습니다. 이 금액은 사상 네번째로 높은 금액이었고 워렌 버핏과의 식사는 2012 년에 3백 45 만불을 비당한 이름을 알리지 않은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과연 메뉴가 무엇이였을까? 2008 년에 65 만불을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지불한 사람의 아티클을 읽어보니 맨하탄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해쉬 브라운, 체리코크를 마셨던 워렌 버핏에 대하여 쓰고 있네요. 굳이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그 레스토랑에서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불한 것은 소위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를 비판하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를 ‘먹보이고 술꾼’이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밥상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먹고 마신 것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베푸신 밥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밥상은 그 어떤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의 밥상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도 예외가 없었던 밥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놀라 주저앉지 않는 한 우리는 삶 속에서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면 사람은 주저앉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밥상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주저앉히는 밥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밥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스스로 값을 지불하시면서 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셨습니다.

모든 선입견, 전통, 관습을 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밥상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밥상에서 정말로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그것이 31 절-32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볼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밥상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밥상을 같이하면 마약, 자살, 범죄가 줄어든다는 사회학적 통계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밥상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첫번째 원칙은 죄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 속에 죄를 멀리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는 어떤 거룩한 자리이기 보다는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의 밥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밥상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우들끼리, 혹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주변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말의 밥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물론 밥먹다 말고 울고불고 하는 지경에 이르면 곤란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즐거운 밥상에서 기쁜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밥상이 또다른 예수님의 은혜의 밥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